

기고



조태상 인천시균형발전정보본부장

정치가 끝나도 시민은 남는다

인천 부평벌 한복판,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품은 채 오목의 세월을 고스란히 감당해 온 땅이 있다. 바로 ‘캠프마켓’이다. 여의도 공원의 두 배 가까운 크기로 면적 44만㎡의 이 땅은 해방 이전에는 일제가 조성한 한강 이남 최대 크기의 조병창으로, 해방 이후에는 주한미군의 주둔지로 사용되었다.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민들의 발걸음을 허용치 않는 급단의 땅으로 멈춰 있었으며, 잃어버린 역사이자 단절의 공간이었다.

1995년 무렵 시민사회가 앞장 서 본격적인 반환 노력을 시작했다. 천막농성과 인간 띠 잇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고 지역 정치권과 정부도 함께 발맞춰 노력했다. 마침내 2002년, 캠프마켓의 이전 및 부지반환 계획이 확정되었고, 2020년 10월 6일 영원할 것만 같았던 캠프마켓의 철옹성같이 단단한 담장이 허물어졌다. 시민들의 간절함이 만든 쾌거였다. 하지만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되돌아오기까지 인천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다. 특히 가장 큰 장애물은 우선반환구역에 대한 조사 결과 검출된 대규모의 고농도 다이옥신과 유류계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이었다. 시간만 멈춰 있는

줄 앞었던 급단의 땅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포의 땅이 될 지도 모를 노릇이었다. 그런 상태에서 개방을 강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치적으로만 판단한다면 ‘전면개방’이라는 화려한 성과로 간판을 세우고 사진을 찍으며 내 치적이 노라 자랑하기 바빴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의 시간은 유한하고 시민의 시간은 무한하다. 시민의 시간으로 무한한 역사를 채워나가야 했다. 그 무한의 역사에 또 다른 오명을 씌우지 않고 첫 단추를 꿰는 것이 현재를 살고 있는 이들의 숙명이다. 그래서 인천은 두말할 것 없이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온전하게’ 되돌려 드리겠다는 선택을 했다.

정화방법과 정화목표는 물론이고 정화와 관련된 모든 절차의 중심은 시민이었다. 그리고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정화에 정말 온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캠프마켓 A구역 내 대기 옥신류 오염토양 1만1031㎡에 대한 정화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국내 최초 오염토 정화’라는 선례까지 남길 수 있었다. 시민의 시간이 만들어 낸 소중한 결실이자 그릇된 정치의 시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민약 당장의 치적에 치중할 나머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을 생략하고 개방에만 목표를 두고 서둘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결과는 상상조차 아찔하다. 정치의 시간에는 항상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 존재한다. 과감한 추진

력과 신속한 의사결정, 그리고 차별화되고픈 욕망이다. 하지만 유한한 정치의 시간을 무한한 시민의 시간에 앞서 생각할 때 오판의 가능성을 더욱 크게 만든다. 다행히도 건강한 민주주의는 오판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갈등과 조정이라는 장치를 마련한다. 집단지성을 가동하는 것이다.

물론 이때에도 주체는 당연히 시민이다. 이러한 장치조차 제대로 가동시키지 않을 때 우리는 이를 ‘독선’이라 지칭한다. 독선적인 의사결정은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를 제외한 모든 측면에서 더 큰 고통을 수반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한다. 그래서 이러한 독선이 쌓이면 ‘독재’가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물은 수년에 걸쳐 한방울 한방울 끊임없이 떨어지며 돌을 마모시켰다. 만일 모든 물을 한꺼번에 빠르게 쏟아냈다면 돌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그저 흘러내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래서 정치의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 정치가 끝나도 시민은 남고 역사는 유유히 흐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인천보다 7배 더 넓은 용산의 땅이 정치의 시간 앞에 놓여 있다. 다시금 되새겼으면 한다. 시민의 시간이고 공간이어야 할 소중한 땅이다. 정치적 욕망을 앞세워 역사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시간이 용산별한 가운데에서도 실현되길 소망한다.

[사설]

구월·관교동 중심상권 개발 염두에 뒀어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에 지상 42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 4개동을 짓는 개발사업이 논란이다. 인천의 중심상권인 구월동·관교동 일대 개발이 또 다시 개발사업으로 진행돼 난개발로 진행됐던 역사가 되풀이될 조짐이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8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에서 인천시가 제안한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제안서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주변 원도심 활성화와 인천경찰청 임지 특성을 고려해 인천경찰청과 사전협상을 진행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사업자는 폐점된 옛 롯데백화점 인천점 부지에 업무·판매·문화시설을 갖춘 고층 주상복합을 짓겠다고 15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현행 층고 제한(지구단위계획)을 완화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를 통해 인천시가 행정적 혜택을 주는 대신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개념을 담고 있다.

건교위 내부에서는 구도심 활성화를 원하는 인근 상인·주민의 요구와 시대 변화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과 인천경찰청 인근에 초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서면 출몰시간이 지연되고

보안업무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갈렸다. 심지어는 인천경찰청 이전까지 거론됐다고 한다.

구월동 롯데백화점 및 관교동 신세계백화점 일대는 구월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역으로 그동안 개발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백화점, 터미널, 오피스 등 각종 상업용 건축물이 들어선 결과 이미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이다.

특히 구월동·관교동은 인천의 중심상권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옛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및 옛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인수한 롯데쇼핑은 이 일대를 인천의 중심상업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가 롯데쇼핑의 계획대로 개발된다면 오피스텔 1856실과 대규모 상가를 갖춘 주상복합시설 6개동 999가구 등 3000여가구가 들어선다. 인천시가 구월동·관교동 일대가 낙후한 원도심이 아니라 인천을 대표하는 상권으로써 롯데쇼핑도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중심상권이라는 점을 모를 리가 없다. 인천시는 앞으로 전반적인 도시계획과 지역상권의 변화, 그리고 주변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업이 아닌 종합적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생활임금 확산 노력을 환영하며

경기도가 생활임금제 민간 확산에 적극 나선다니 반갑다. 경기도는 내년도 생활임금 산정고향 후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를 경기연구원에 의뢰했고, 이후 민간 부문에서 폭넓게 생활임금을 수용토록 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임금의 수준은 경제논리만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점을 열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생활임금은 날로 심각해지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과 문화 등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뜻한다. 노동자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삼는 최저임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생활임금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경기도 부천시가 앞장서고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뒤이어 도입하면서 공공부문에 널리 적용되기 시작했다.

경기도의 올해 생활임금은 시급 1만 1141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32만8469원이다. 최저임금보다 21.6% 많다.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면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경기도의 생활임금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서울(1만776원)을 넘어섰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다. 경기도 기초단체 가운데는 성남시의 생활임금이 1만1080원으로 가장 많다.

조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은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만 적용된다. 경제논리만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점을 열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생활임금은 날로 심각해지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과 문화 등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뜻한다. 노동자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삼는 최저임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생활임금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경기도 부천시가 앞장서고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뒤이어 도입하면서 공공부문에 널리 적용되기 시작했다.

경기도의 올해 생활임금은 시급 1만 1141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32만8469원이다. 최저임금보다 21.6% 많다.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면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경기도의 생활임금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서울(1만776원)을 넘어섰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다. 경기도 기초단체 가운데는 성남시의 생활임금이 1만1080원으로 가장 많다.

조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은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만 적용된다. 경제논리만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점을 열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생활임금은 날로 심각해지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과 문화 등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뜻한다. 노동자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삼는 최저임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생활임금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경기도 부천시가 앞장서고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뒤이어 도입하면서 공공부문에 널리 적용되기 시작했다.

경기도의 올해 생활임금은 시급 1만 1141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32만8469원이다. 최저임금보다 21.6% 많다.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면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경기도의 생활임금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서울(1만776원)을 넘어섰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다. 경기도 기초단체 가운데는 성남시의 생활임금이 1만1080원으로 가장 많다.

조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은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만 적용된다. 경제논리만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점을 열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생활임금은 날로 심각해지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과 문화 등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뜻한다. 노동자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삼는 최저임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생활임금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경기도 부천시가 앞장서고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뒤이어 도입하면서 공공부문에 널리 적용되기 시작했다.

생물마을



한현도 논설위원

풍도바람꽃 소식

경기도의 꽃 소식은 남쪽에서만 올라오지 않는다. 서쪽 바다 풍도에서도 들려온다. 이맘때 안산 풍도는 1년 중 가장 주목을 받는다. 3~4월 후량산 비탈에서 진귀한 야생화들이 무리지어 피어난다. 풍도에서만 볼 수 있다는 풍도바람꽃과 풍도대극이 압권이다.

바람꽃을 서양말로로는 아네모네라 한다. 꽃의 여신 플로라의 시녀였으나, 플로라의 남편 제피로스(서풍)와 사랑에 빠지는 바람에 플로라의 질투로 꽃이 되었다는 신화가 따라다닌다. 막장드라마 같인데, 앤지 잔하다.

온화한 서쪽 바람이 만지듯 지나가면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을 보고 상상해 낸 ‘치정극’이리라. 아네모네의 꽃말이 ‘사랑의 괴로움’이다. 막장드라마는 욕하면서 본다지만, 바람꽃 종류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좋아서 욕을 떠올릴 겨를이 없다.

풍도바람꽃은 변산바람꽃의 아종이라 여겨지다가, 꽃잎이 더 크고 모양이 다르다는 점이 밝혀져 풍도바람꽃이라는 이름을 정식으로 얻었다. 풍도라는 섬 이름도 풍파를 겪었다. 풍성할 풍(豊)자를 쓰다가 2021년 봄에야 단풍나무 풍(楓)자 본디 이름을 되찾았다. 이름을 잃었던 시점은 청일전쟁 직후 갑오개혁 때였다. 전쟁에서 이긴 일본의 입김 때문에 아날개 짐작된다.

서해의 작은 섬 풍도는 2000년대 들어 경기도의 야생화 전국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유명해졌으나, 그 전에는 청일전쟁의 불길에 땀겨진 곳으로 역사에 이름이 남은 곳이었다. 당시 외세의 힘을 빌려 동학농민군을 제압하려는 집권세력들 때문에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들어와 있었다. 아산만으로 들어온 청나라 북양군은 바다길로 보급을 받고 있었는데, 일본군은 이 해로를 차단해 버릴 계획을 세웠다. 1894년 7월 25일 새벽 공시 선전포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해군이 청나라 해군을 공격하는 풍도해전이 시작되었고, 한반도는 전쟁터가 되었다.

풍도서만 볼 수 있는 또 다른 야생화 풍도대극은 색깔의 변화가 놀랍다. 꽃봉오리가 맺힐 무렵까지 자주색이었다가 꽃이 벌어지면서 점차 연두색으로, 녹색으로 변한다. 붉은 단풍나무의 역순이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 찍은 사진을 들여다볼수록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조화가 신비하다. 바람꽃 신화에 빛대면, 서쪽 바람이 어루만져 생명의 색이 피어났을 터이다.

아마도 갑오년(1894년) 봄에도 풍도바람꽃과 풍도대극이 후량산 기슭에 피어났을 터이고, 전쟁 다음해인 을미년(1895년) 봄에도 서풍은 야생화들을 깨웠을 터이다. 역병은 여전히 심술궂고, 미사일은 날라 다니지만, 여전히 곱게 피었을 풍도야생화가 보고 싶은 2022년 임인년 봄이다.

정확한 정보, 신속한 정보 전달

인천·경기지역 언론을 이끌어 온 내고향 청춘지 인천일보! 사회적 부흥이고 조망일과 소통하는 인천일보! 일방적인 위자와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대표전화 032)4520-114
구독신청 032)4520-134
광고문의 032)4520-151

신속한정승인공고

인천·경기지역 언론을 이끌어 온 내고향 청춘지 인천일보! 사회적 부흥이고 조망일과 소통하는 인천일보! 일방적인 위자와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2022년 3월 30일
유통인: 원연주 외 4명

인천 최대의 중고차 판매단지
간석 자동차 매매단지

35개 상주 입주
자동차 인천 최대 보유

모든 자동차 OK!

1566-2914

덕적군도 토지공인중개사

도림동 임야 330㎡(100평)
개발제한구역, 1층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분매매
소액 땅으로 큰돈번다
제2경인선 확장(도림사거리)
매가 6천만원

덕적도 땅 사실분, 파실분 (덕적도전문중개사)
전원주택, 세컨하우스 농막하기 좋은땅 진리, 서포리
30만원

서구 가좌동 인천씨티 2층 아파트형 공장
415.5㎡(126평) (전용) 입주할시 pcb 이외도 가능
현재공사 매가 2억 4천

김포 월곶면 포내리
대지 356.4㎡(108평) 건평 504.9㎡(153평) 3층 원통, 식당 적당
월가 4억 가능 매가 8억

공장
당진 성문 산업단지 상봉리 공장용지 4290㎡(1300평) 건평 2495㎡(750평)
매매가 15억

인천 출생진 / 제28720-2021-00003
덕적군도 토지공인중개사 대표 박중근
032-832-1090, 010-5249-4466
E-mail : guide3344@daum.net

인천일보 인천일보 TV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에서

인천일보TV를 검색하세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빠르게

인천일보가 종합미디어그룹으로 더 큰 도약을 시작합니다

독자와 함께 씀

33년 역사